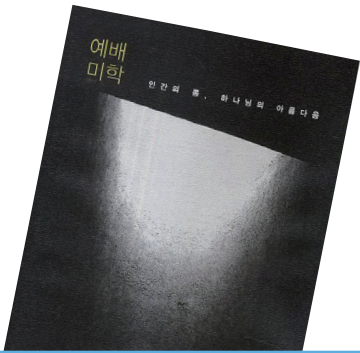




오늘의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_ 이사야 52:7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 | 하나님 백성의 선교 요약 | 4 | 신춘문예 당선소감 및 심사평 | 9-10 | 청년부 겨울수련회 |
| 3 | 사역별 추천도서 명문장 | 4 | 교회말 바로잡기 | 11 | 십자말씀이 |
| 3 | 제직수련회 소식 | 5-8 | 제직부서 편성 | 12 | 교회사용설명서 |



나도 한 때는... 이라며 가끔 추억하게 되는 그때.
지금, 바로 그때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보며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들이 나이가 들어 '나도 한 때는...' 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때의 뜨거움을 간직한 채 그 위에 지혜가 더해져서
'그때보다 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장년이 되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울겨울 그들의 마음 속에 새겨주신 결단의 모습들을 보며
함께 그 소망을 담아 청년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는 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책소개 시리즈
하나님 백성의 선교⑩

살아 계신 한 분 하나님과 구세주를 아는 백성

우리의 모든 성경신학은 선교적이며 또한 선교적이어야 한다. 성경신학은 정의상 ‘삶을 위한 신학’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알리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하나님이 나누기 원하시는 지식은 위임되어야 한다. 이점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선교적으로 만들어 준다. 우리의 모든 선교 이면에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향해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알려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선교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가능하게 만든다.

우리는 사도행전 4:1-22과 신명기 4:32-39 두 본문을 살펴볼 것이다.

1. 도전적인 상황들

두 본문이 가진 공통적인 요소는 주어진 상황이 갈등과 도전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사상, 세계관, 종교적 열심이 충돌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가 직면한 선교적 상황 역시 도전적이다. 기독교 신앙은 온갖 종류의 경쟁적인 주장과 충성에 직면하여 정체성과 특수성을 표현해야 한다. 우리 주변 세계에 가득한 유혹의 힘으로 인해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1) 사도행전 -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았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날 때부터 견지 못하던 자가 치유되었다는 사실만큼이나 목격자의 증언이 있는 사실이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아무리 영적이라 할지라도 종교적 사색이나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을 공적으로 증언한 증인에 근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은 일어난 것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2) 신명기 - 너희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일어난 신의 현현과 출애굽 구출 둘 모두를 언급하며 그와 같은 일이 한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경험은 전적으로 독특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아웨는 다른 백성이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웨는 다른 백성이 아직 알지 못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구원: 출애굽은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경험이었다. 그들은 한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이제 자유민이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한다. 강력한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 아웨에 대해 그들이 알았던 것은 무엇이든 이 사실에 근거해 알았던 것이다.

계시: 시내 산 경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경험한 압도적 사건이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웨에 대해 아는 것은 모두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 것이었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나눈다고 말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일어난 사건들에 근거해서 아는 것이며, 그 사건들에 대한 해석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런 사건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증언에 의지한다. 그리고 그 증언은 성경에 있다.

2. 단호한 주장들

“다른 신은 없다”는 표현은 두 본문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색이다.

(1) 신명기 - 다른 신은 없다.

이스라엘이 매우 독특한 경험을 했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아주 중대한 어떤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정체성이었다. 아웨, 오직 아웨만이 하나님이시며, 우주의 어디에도 다른 신은 없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았다. 그들은 당시 다른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은 아웨로 계시된 하나님이시다. 아웨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주장과 아웨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주장이 결합된 것을 발견한다. 아웨와 같은 분은 없기에, 결국에는 모든 열방이 나아와 한 분 참 하나님으로 그분을 예배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이 위대한 진리에는 선교적 차원이 담겨 있는 것이다.

(2) 사도행전 - 다른 구주는 없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 말한다. 모든 사람이 아웨에 대해 믿었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진리를 태연하게 예수님께 적용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위치를 차지하신다. ‘예수’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한 유일하고, 신적이고, 구원하는 능력을 지닌 이름이다.

3. 완전한 충성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이 이스라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고 아웨를 유일하고 보편적인 하나님으로 아는 근거가 된다고 단언함을 보게 된다. 그리고 같은 방식,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신약 성경은 나사렛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특성과 아웨의 유일성을 구현한 분이라고 단언한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또 알리도록 부름받았다. 우리의 선교는 성경적 유일신론의 진리(구약에서 아웨의 유일성과 신약에서 예수님의 유일성)를 필연적으로 반영한다.

(1) 사도행전 -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셨다면,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그분 자신과 화해시키셨다면, 그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실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는 없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와 주님이시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그리고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와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전적인 충성과 확고한 증언으로 그분을 위해 나서도록 부름받는다.

(2) 신명기 -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이 “알고 명심해야”했던 신명기 4장의 위대한 진리들은 신명기 6:4-5의 쉼마의 결정적 단언과 명령 가운데 결합되어 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약

성경적 복음은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로 절정에 이르는, 독특한 사건과 부인할 수 없는 경험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를 알려준다. 더 나아가 복음은, 이런 사건들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그분의 창조세계 전체를 구속하기 위해 행동하셨으며, 그와 같은 구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하나님이나 다른 원천은 없다고 단호한 주장을 펼친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에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완전한 충성을 바칠 것을 주장한다.

함글함글

사역별 추천도서 명문장
예배부

예배미학 - 인간의 몸,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배, 그 아름다움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내면의 모순과 절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중략>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 보이는 공동의 행위이고 인류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구속에 동참하는 행위이다. 이는 단순한 기억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임재와 부재, 그 사이에서

우리의 예배는 육체를 갖고 이 세상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시고 경험했던 세상을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모든 감각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성육신과 인간의 몸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종교이다. 초월자가 인간이 되어서 아픔과 고통, 슬픔과 기쁨, 배고픔과 포만감을 경험한다. 그는 또한 고통 받는 자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중략>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예배언어

예배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어이다. 세상의 어둠과 자신의 죄에 애통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어로 세상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다.

침묵과 탄식

우리는 침묵을 통해 초월자의 부재와 임재를 통합하는 감각을 훈련해야 한다. 세상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감각적 훈련을 예배를 통해 이뤄야 한다. <중략> 하나님의 부재를 가장 강하게 경험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장 절실하게 느낀다.

고통의 탄식을 넘어

예배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가 현존하심을 깊이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고통의 울부짖음과 고난의 경험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다. 예배자가 아무리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희망을 갖는 것이 예배이다.

성찬 - 삶과 피를 먹고 마시다

성찬에서 우리는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

고,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과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과 연대하는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은총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종말론적 식사를 한다.

유기적 예배

예배는 한 개인의 의식 흐름이나 작용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움직임이고 행위이다. 예배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공동체가 창조자 앞에 서는 행위이다.

공간의 아름다움

예배 공간에는 기독교의 오랜 역사 가운데 간직되어 온 독특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을 만난 공동체, 개인들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다. 예배가 이뤄지는 그 공간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인간의 이야기가 만나는 신비가 일어난다.

시간의 아름다움 - 색과 예배

교회력에 따른 색깔은 하나님의 현존과 부재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고 나아가 이성적 범주 너머로 우리를 인도한다. 순환적인 자연 속에 일회적이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가 스며든 것이 바로 교회력이고 교회력의 많은 부분은 색깔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눈과 눈물 - 예배의 이해

예배를 연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층적인 분석과 묘사를 필요로 한다. 먼저, 예배가 회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역동성을 통해 인도자의 관점이 재생산되고 확장되는지를 비판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중략> 이런 점에서 몸짓과 자세, 회중의 동작과 인도자의 동선을 회중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예배를 재구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예배 문화의 수용

최근에는 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학자나 전문가가 가르치는 예배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예배 참석자의 해석과 이해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참여자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깊게 경험하며 인식의 변화를 이루어가는지에 예배의 초점을 두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교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고 만들어 간다.

함줄함울 / 예배미학(박종환, 동연)

제직수련회

내가 당신 뒤에 서겠습니다

2024년 1월 28일(주일)에는 2024년 제직수련회가 있었다. 통합총회 헌법에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로 한다’고 되어 있다(제91조). 제직회는 교회 각 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교회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교회의 살림을 맡아 수행하는 당회의 관할 아래 있는 조직체이다.

제직수련회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제직들이 한해동안 어떤 마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제직수련회에서 김강식 목사(산돌교회 담임)는 빌립보서 2장 4~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애프터 유(After You)’하는 제직>이란 제목으로 제직의 마음과 태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고 2024년 서기장로인 황용환 장로의 진행으로 3개의 위원회와 15개 분과위원회 및 각 제직부서, 3개의 부설기관, 13개 전문위원회, 기관 및 자치회 소개가 있었다.

함줄함울

2024 함글함글 신춘문예
당선소감

상징과 비유와 함축은 하나님 계시 방법의 하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_ 롬 1:20

이 말씀이 마음에 비취진 이후로 우주 만물이 달라 보였습니다. 겨울철 앙상한 나무가 여름철 무성한 나무로 변화하는 속을 누가 알랴? 광합성이라는 생존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무. 인간은 알지 못하니 그저 신비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닐까요?

다 아시다시피 시는 짧은 글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 세상과 소박한 생각을 담기에 넉넉한 그릇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징과 비유와 함축은

하나님의 계시 방법의 하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운율과 의미와 회화와 더불어 시의 존재 양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농축된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50편 중 73편을 쓴 다윗처럼...

부족한 제 시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성수 집사 / 5교구

2024 함글함글 신춘문예
심사평

기독교인의 문학하기

지하철 안에서 책 보는 사람 보기 어려운 시대이다.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온라인 쇼핑물 이미지를 손끝으로 끌어 올리면서 눈요기를 한다. ‘글’을 읽지 않는다. ‘여러 문장으로 된 긴 글’은 더구나 읽지 않는다. 종이 신문을 읽는 사람들도 찾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자신이 즐겨 보는 주제에 맞게 제시해 주는 동영상을 흘린 듯이 본다. ‘숏폼’이라고 하는 몇십 초 안팎의 짧은 동영상에 중독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입장과 욕망에 동조하는 영상들만 반복해서 보게 되고, 드디어는 ‘확증편향’에 빠져 사고의 균형을 잃기 마련이다.

지난 해 함글함글 신춘문예 심사평에서 “요즘의 사회문화적 흐름 속에서 시, 수필 등과 같은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하는 일은 희망, 회복, 공감, 연대와 같은 문학 본연의 공간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살펴보아야 할 기독교인의 정신세계를 돌아보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글을 쓰고 읽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시대의 도전과 불확실성을 은혜와 공감, 믿음과 소망을 통해 탐색하는 방법에 대한 관점과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썼었다. 여전히 이 진단과 처방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기독교인의 소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랜 묵상과 예수님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 그리고 말씀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데 있다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 활동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독교 문인”을 발굴하기 위해 출범한 함글함글 신춘문예에는 일반적인 문예 공모와 약간 다른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작품은 접수된 후, 공지된 응모 요건에 합당한 작품만을 골라, 응모자의 이름을 지운 상태에서 예심과 본심을 거치게 된다. 예심과 본심의 심사 기준은 다섯 가지로, 첫째 삶과 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둘째 창조적 상상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 일정 수준 이상의 문학적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야 하고, 넷째 응모한 부문의 장르적 특성에 응모작이 합당해야 하며, 다섯째 시적 허용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수준의 어법이 지켜져야 한다. 중앙일간지 신춘문예와 같은 높은 문학적 수준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삶과 신앙에 대한 깊은 묵상”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올해 네 번째를 맞은 2024년 함글함글 신춘문예의 응모자는 시 부문 8명, 수필 부문 6명, 간증 부문 4명이었다. 전년보다 늘어난 응모자였지만, 많은 분들이 응모 편수나 원고 분량과 같은 응모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가운데, 시 부문에서 임성수 집사의 <모를 때>가 당선자의 영예를 안았다. 시 당선작 <모를 때>는, 시어는 평이해 보이지만, 땅에 뿌리 박고 있는 큰 나무라는 심상을 통해, 우리들에게 허락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이제야 알게 된 자로서 그 나무뿌리에 비유되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시인의 깊은 사유가 엿보인다는 평을 받으면서 본심 위원 세 분 모두의 추천으로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임성수 집사에게 축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교회 공동체 속에서 ‘기독교인의 문학하기’를 함께 추동할 동료로서 반가운 인사를 전한다.

함글함글

교회에서 쓰는 말 바로잡기

예배, 예식에 대해 잘못 쓰는 말

주기도문(사도신경)을 외우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예배 시에 성도들은 결코 주기도문을 단순히 외우는 것, 즉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디 한 마디 뜻을 바로 새기면서 음송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른 표현은 “다같이 주님 가르쳐주신대로 기도하겠습니다”이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외우겠습니다”라는 표현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제사, 제단, 제물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 하던 제사는 모든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되었고, 신약시대에 들어 예배로 내용과 형식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금도 예배를 제사의 의미로 이해하며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단에 나와서 작은 제물을 바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제사는 ‘예배’로, 제단은 ‘성단’으로, 제물은 ‘예물’로 바꾸어야 한다. 한편, 제단을 ‘강단’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은 성례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교만 이루어지는 단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므로 ‘성단’이라 함이 적절하다.

기도로 폐회합니다.

예배가 끝날 즈음해서 “이제 목사님의 축도로 폐회합니다”, “장로님의 기도로 폐회합니다”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 낮 예배는 물론 새벽기도회나 수요기도회, 금요 심야기도회 등도 비록 우리가 관례를 따라 ‘회’라고는 하지만 예배의 일종이므로 이때에 ‘폐회합니다’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함글함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교회소식

2024 제직부서 편성

- 공동의회 / 의장 : 김화수 목사

• 제 직 회 / 의장 : 김화수 목사
- 서기 : 황용환 장로

서기 : 정락영 안수집사
- 당회 / 당회장 : 김화수 목사

서기 : 황용환 장로

재정 : 조병길 장로

감사 : 이성준 장로

1. 목양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목양	손영익 장로	예 배	신호철 장로	박주영 목사
		음 악	서정하 장로	이대혁 목사
		소그룹	신형섭 장로	이종성 목사
		젊은이	김용규 장로	이대혁 목사
		양 육	손영익 장로	윤경수 목사
		봉 사	정상기 장로	차승천 목사

1) 예배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	부	부장
1	예배부	홍기호 안수집사	4	성찬부	최금주 권사	7	중보기도부	김미성 권사
2	안내1부	김상진 안수집사	5	세례부	오광순 안수집사	8	할렐루아찬양대	신말희 권사
3	안내2부	손준웅 안수집사	6	새벽기도부	오세원 안수집사	9	영어예배부	김범석 안수집사

2) 음악 분과위원회

#	부	지휘자	부장(대장)	반주자(오르간/피아노)	#	부	지휘자	부장(대장)	반주자/지도권사
1	호산나찬양대	민태경	이효두 안수집사	이혜정 / 조선희	4	임마누엘찬양대	이명국 안수집사	김재춘 집사	장서영(피아노)
2	시온찬양대	김현욱	박혁동 안수집사	황은지 / 원요한	5	찬양지원부		김광수 집사	고유자 권사
3	살롬찬양대	김형수	이정혁 안수집사	김성희 / 정이와	6	주오오케스트라	정유경 집사	임경의 집사	최영순 권사

3) 소그룹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소그룹지원부	함혜련 권사	2	은사사역부	김지수 권사

4) 젊은이(8교구) 분과위원회

#	부	부장
1	젊은이사역부	원인숙 권사

5) 양육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새가족부	김병연 안수집사	2	양육훈련부	이영수 권사

6) 봉사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봉사부	오세원 안수집사	4	도서서점부	박동진 안수집사
2	주차안내부	이성욱 안수집사	5	결혼예식부	유윤실 권사

2. 교육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교육	김광일 장로	유아	김은성 장로	이윤경 목사
		유소년	박기운 장로	이상훈 목사
		청소년	이현식 장로	임경순 목사
		청년	김광일 장로	정구민 목사

1) 유아 분과위원회 (유아숲)

#	부	담당교역자	1부 부장/지도권사, 2부 부장/지도권사	#	부	담당교역자	1부 부장/지도권사, 2부 부장/지도권사
1	유아숲 교육지원부	이윤경	이은우	5	유아부(쌍트네)	이은솔	지형민 / 조정숙, 강기선 / 이미화
2	아기정원	이윤경	신미영	6	유치부(담쟁이)	이수진	송 희 / 권이홍, 이숙희 / 이왕희
3	아기부(하임)	김오정	박수희	7	어와나 커비스	김오정	이정우
4	영아부(하늘씨앗)	이영선	이미화 / 조은경, 어진원 / 조은영				

2) 유소년 분과위원회
(유소년숲)

#	부	담당교역자	1부 부장/지도권사, 2부 부장 / 지도권사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1	유소년숲 교육지원부	이상훈	정유석	5	어와나 스팅스	강요한	이정우 / 윤현숙
2	유년부(포도나무)	강요한	송영민 / 김선희, 유 경 / 이경아	6	어와나 티앤티	권동준	이정우 / 원인숙
3	초등부(햇살뜨락)	권동준,이상훈	이승훈 / 임광희, 신재은 / 김경희	7	어린이 EM	정지인	김재율
4	소년부(아름드리)	이수민	이정춘 / 원은영, 강정여 / 이춘희				

3) 청소년 분과위원회
(청소년숲)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1	청소년숲 교육지원부	임경순	강희정	4	어와나 트랙	백양선	임성훈 / 손태향
2	중등부(팝콘트리)	최혜원, 오성민	정재영 / 임미희	5	어와나 저니	백양선	임성훈 / 손태향
3	고등부(비전트리)	김계원, 김지원	최성이 / 이미경				

4) 청년 분과위원회
(청년부)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 / 지도권사
1	청년부	정구민, 이충만, 조수휘, 김세연	최영인 / 임연옥

3. 선교구제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선교구제	유정식 장로	국내선교	홍완식 장로	배윤환 목사
		통일선교	김낙균 장로	차승천 목사
		해외선교	임익수 장로	박민규 목사
		전문선교	유정식 장로	한시영 목사
		구제복지	정준호 장로	배윤환 목사

1) 국내선교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국내선교지원부	유신식 안수집사	5	협력교회선교부	목기숙 권사
2	군경선교부	복향수 안수집사	6	다문화선교부	장동현 안수집사
3	농어촌선교부	천정희 권사	7	기관선교부	권진영 권사
4	도시교회선교부	박범석 안수집사			

2) 통일선교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 지도권사
1	통일선교지원부	김재민 권사	3	너나들이부	강대수 안수집사
2	하나원부	정기순 권사	4	대외협력부	이성호 안수집사

3) 해외선교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해외선교지원부	박석진 안수집사	4	선교지역 1부	안정수 안수집사
2	선교기도교육부	정혜정 집사	5	선교지역 2부	신성철 안수집사
3	비전트립지원부	이재홍 안수집사	6	외국인유학생선교부	김영화 집사

4) 전문선교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기획운영부	박준명 안수집사	5	이미용부	차정숙 집사
2	스포츠선교부	서철수 안수집사	6	법조선교부	윤승진 안수집사
3	무용부	윤숙영 권사	7	의료선교부	이광우 안수집사
4	사진부	박진현 안수집사			

5) 구제복지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교역자	부장
1	구제부	송재승 안수집사	4	사랑나무부	노홍주 전도사	엄인호 안수집사
2	호스피스부	이부자 권사	5	장애인사역부	김은선 목사	탁동원 안수집사
3	전화상담부	김숙연 권사				

4. 부설기관

1) 청소년사역원
담당 장로 : 서정하 장로
담당 교역자 : 임경순 목사

#	부	부장	#	부	부장
1	청사원지원부	신기숙 권사	3	반가운학교부	이은영 권사
2	학원선교부	김미선 권사	4	꿈나무부	전숙정 권사

2) (사)섬김과 나눔
담당 장로 : 최재경 장로
담당 교역자 : 이대혁 목사

#	부	부장	#	위탁기관	부장
1	사무국	이철용 안수집사	4	특별구제부	이정은 집사
2	늘푸른대학부	정원영 안수집사	5	송파교육복지센터	박은경
3	생활지원부	소봉순 권사	6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김선화

3) 가정사역원(B.P.C.)
담당 장로 : 박기운 장로
담당 교역자 : 한시영 목사

#	부	부장	#	부	부장
1	가정사역부	정현식 안수집사	2	가정사역훈련부	고경임 권사

5. 전문위원회

위원회 / 센터	위원장	위원	부장
기획조정위원회	김화수	황용환, 유정식, 손영익, 조병길, 김광일, 최재경, 황바울	
대외협력위원회	황용환	김광일, 김은성, 이현식, 서정하, 최재경, 임익수, 홍완식, 임경순	(사무국장)
인사위원회	김화수	황용환, 조병길, 최재경, 임익수, 홍완식, 황바울	
예산심의위원회	김화수	황용환, 유정식, 손영익, 조병길, 김광일, 김은성, 김낙균	
미디어관리위원회	김낙균	신형섭, 서정하, 임익수, 신호철, 박민규	홍보출판부 : 어진원 안수집사 역사자료관리부 : 정원영 안수집사
사무국운영위원회	김화수	황용환, 유정식, 손영익, 조병길, 김광일, 김낙균, 최재경	(사무국장)
선거관리위원회	이현식	김낙균, 서정하, 정준호, 김용규, 정상기, 박민규	
치리위원회	김화수	황용환, 유정식, 이현식, 김용규, 홍완식, 황바울	
상례위원회	상반기 : 신형섭 하반기 : 정준호	박기운, 신호철, 정상기, (사무국장)	상례부장 : 박영상 안수집사
주방운영위원회	상반기:(정)김은성 하반기:(정)신형섭	(부) 이현식, 신형섭 (부) 김은성	주방부장 : 이영숙 권사
하나님의선교위원회	김화수	황바울, 황용환, 유정식, 손영익, 조병길, 김광일, 김낙균, 윤경수, 이대혁, 배윤환, 박민규	
재정위원회	조병길	계수1부 : 서병운 안수집사 계수2부 : 박태곤 안수집사	재정부장 : 임정식 안수집사
감사위원회	이성준	윤성진 안수집사, 손태향 권사, 김영화 안수집사, 최우철 안수집사	

* 상례위원회 하임찬양대 : 대장 – 이혜영 권사 / 지휘 – 안명숙 집사 / 반주 – 유혜경 권사 외 27명

고유자 김애식 김영희 김희수 김홍숙 김혜선 박정은 박경희 이미화 이경란 이영숙 이경미 이효두 오성자
오현옥 임성은 임연옥 안경희 지영민 조보연 정루미 최민기 홍정미 목기숙

6. 기관 및 자치회 회장

기관 및 자치회	회장	기관 및 자치회	회장
여전도회 연합회장	신영숙 권사	남선교회 연합회장	이명기 안수집사
1여전도회	나경희 권사	1남선교회	전선재 안수집사
2여전도회	고유자 권사	2남선교회	한군희 안수집사
3여전도회	신영숙 집사	3남선교회	신성철 안수집사
4여전도회	이왕희 권사	4남선교회	김명훈 안수집사
5여전도회	박성연 집사	5남선교회	이승균 안수집사
6여전도회	신정미 집사	6남선교회	윤승진 안수집사
권사회	김광희 권사	안수집사회	임정식 안수집사
		장로회	유정식 장로

7. 담당 교역자

교역자	교구 / 부서	주요 사역(위원회)	기타 사역 및 기관
황바울 목사	선임행정	전문위원회	사역총괄, 목회행정, 피택자교육, 자치회(장로회)
박주영 목사	1교구	예배분과위원회	중보기도부, 새벽기도부, 자치회(안수집사회)
이종성 목사	3교구	소그룹분과위원회	찬양사역, 상례, 교적, 자치회(권사회)
한시영 목사	7교구	전문선교분과위원회	기획, 가정사역원 총괄, 큐티사역, 주일설교 쇼츠영상 / 한절묵상
임경순 목사	청소년	청소년분과위원회	청소년사역 총괄, 청소년사역원
윤경수 목사	5교구	양육분과위원회	새가족부, 양육클래스, 세움학당
이대혁 목사	8교구	음악분과위원회 젊은이분과위원회	섬김과 나눔(사단법인)
정구민 목사	청년부	청년분과위원회	청년사역 총괄
이상훈 목사	유소년	유소년분과위원회	유소년숲 총괄, 초등부, 어린이제자훈련, 가정사역원(파더와이즈)
배윤환 목사	4교구	국내선교분과위원회 구제복지분과위원회	장애인사역부, 가정사역원(가정예배학교, 아름다운부모학교), 자치회(여전도회)
박민규 목사	2교구	미디어관리위원회 해외선교분과위원회	미디어행정(IT/방송/음향), 영상기획 및 관리, 선거관리위원회
이윤경 목사	유아	유아분과위원회	유아숲 총괄, 아기정원, 가정사역원(마더와이즈)
차승천 목사	6교구	봉사분과위원회 통일선교분과위원회	주방운영위원회, 함글함글, 자치회(남선교회)

전임 교역자

장성식 목사	소그룹(행정), 찬양, 피택자교육, 양육(새가족)	이은솔 전도사	유아1·2부, 유아숲 행정, 아기정원
박준범 목사	양육(큐티), 젊은이(8교구) 가정사역원(결혼예비학교)	김계원 전도사	고등부, 청소년사역원
최혜원 목사	중등부, 청소년사역원	강요한 전도사	유소년숲 행정, 유년부, 가정사역원 (자녀축복새벽기도회), 어와나
김은선 목사	장애인사역부(에바다, 잇딤나무), 가정사역원 (해피맘스쿨, 꿈꾸는3막)	이왕헌 전도사	목양실, 가정사역원(행정), 하나님의선교위원회(행정)
이충만 목사	청년부(드림힐), 행정, 찬양팀, 사랑나눔팀		

청년부
겨울수련회

WAVE MAKER X BREAK TIME 겨울 수련회를 돌아보며

2024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퍼뜨려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사야 54장 2절 말씀 하에 Wave Maker X Break Time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Wave Maker는 장막터를 넓히고 줄을 길게 하듯, 자신의 안과 밖으로 선한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부제 Break Time은 선한 파도를 일으키기 위해 기존의 ‘나’를 깨뜨리고 잠시 멈추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많은 청년들에게 참 익숙한 공간인 교회 중예배실에서, 익숙한 것들을 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그리고 세상 속에 주님의 파도를 만들어내고자 약 140여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1일차 _ 1월 19일(금)

정구민 목사님께서 ‘귀히 쓰이는 그릇’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 청년들은 수련회 기간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며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시간도 갖고, 도전골든벨 형식으로 교회와 청년부에 관한 퀴즈를 맞추는 시간도 가지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금요 특강 시간에는 홍성원 목사님과 아들 홍원기 군을 초청하셨습니다. 소아조로증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과정을 함께한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로서 어떤 심정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에 대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사님의 가족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대중들의 호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은 세상 속에 어떤 모습의 웨이브메이커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조모임 시간에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신앙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감사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등 점검항목을 통해 수련회 기간 자기 자신 안에 깨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청년부 부장단에서 집밥과 같은 식사를 준비해주셨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섬겨주신 덕분에 청년들이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집회였습니다. 산본교회 이상갑 목사님께서 ‘설래임(말씀이 와서 임한다)’의 지경을 넓히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이날 청년들은 모두 ‘신약 1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와 몸짓으로 드리는 찬양, 청년들의 합심기도와 중보기도 순서들이 이어지며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찾아가 서로의 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더욱 하나 되는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2일차 _ 1월 20일(토)

2일차에 청년들은 다시 중예배실로 모여 두 번째 공동체 프로그램 시간

을 가졌습니다. 스태프들이 마련한 코너를 조별로 이동하며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미노 만들기, 세밀한 소리 듣고 무슨 소리인지 맞추기, 성경구절 속 숨은 단어 찾기, 팀원들이 한 번씩 슬리퍼 던져서 빙고 만들기, 팀 대항 판 뒤집기, 등에 그림 그려서 맞추기와 같은 게임들을 거듭하며 게임 속에 담겨 있는 성경적 의미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조별로 교회 밖 나들이와 점심 식사를 하며 친교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한층 더 가까워진 청년들은 다시 모여 토요 특강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특강은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이화선 간사님이 매일 1전도를 실천하는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사님의 진실된 이야기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전과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조모임 시간에는 수련회 이후 각자 어떤 웨이브메이커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미션을 담아 ‘개인 신앙 목표 가이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어떤 청년은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고 더욱 사랑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은 주님의 말씀 중 삶으로 살아내기 어려웠던 영역들을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일으킬 파도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일차도 집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갑 목사님께서 이날엔 ‘기도로 꿈의 지경을 넓히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질문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청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에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별로 둘러앉아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돌아가며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웃기도 울기도 하면서 삶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청년들은 동역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3일차 _ 1월 21일(주일)

3일차에는 정구민 목사님께서 ‘예수를 얻은 자’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교회 밖에서 웨이브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청년들이 더욱 예수님으로 자신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쳐야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청년들은 우리 삶의 방향과 초점이 모두 예수님께 맞춰지기를, 우리의 눈과 귀가 모두 예수님을 향하도록,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섬겨주신 모든 교역자님들, 부장단님들, 사역팀들, 조장들, 공동체 프로그램 스태프들, 임원단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섬김에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모임으로 수련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롤링페이퍼를 쓰며 수련회에서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다시 떠올리기도 하고, 서로 함께할 수 있음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앞으로의 삶을 격려해주었습니다.

겨울 수련회로 웨이브메이커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청년들의 올 한 해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수련회 기간 받은 은혜를 입어 세상 속에 주님의 파도를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정연 / 청년부 23기



청년부
겨울수련회 후기

모두 깨어지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

찬양과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던 2024 청년부 겨울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Wave Maker: Break Time>이라는 수련회 주제에 맞게 집회와 특강을 통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신앙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1시간 넘게 워십하고 뛰어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인 것도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를 떠나 있던 청년들도, 관성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도 모두 깨어지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조장으로 섬기며 10명의 조원들과 함께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어색하기만 했던 서로였지만, 집회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제목을 나누며 손을 얹고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만난 신앙의 동역자들이 내가 넘어

질 때 나를 일으켜주고, 중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전도'의 소망도 생겼습니다.

2박 3일간의 수련회 이후에는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수련회를 통해 알게 된 청년들이 많아 주일에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수련회에서 공동체와 함께 공유했던 '신앙 목표 가이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이상갑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마음에 깊게 새긴 '신약 1독'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저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룩한 실패를 거듭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세상 속에 주님의 파도를 일으키는 저와 청년부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

이은혜 / 청년부 26기

청년부
겨울수련회 후기

함께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2024년 1월 19일 ~ 21일까지 진행되었던 이번 청년부 겨울수련회는 교회에서 하는 첫 수련회였기에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수련회에 이어 이번 겨울 수련회에서도 공동체 프로그램 스태프로 섬길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시간부터 진행되는 모든 순간들까지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았지만 스태프 언니, 오빠, 동생들과 함께 주제에 대해 더 고민하고 서로 의지하며 잘 준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화합하며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며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련회를 준비하는 많은 귀한 손길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특히 조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조모임을 하며 신앙적 목표에 대해 나누고 Wave maker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함으로써 서로 응원하며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매 수련회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한명 한명을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의미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첫째날과 둘째날 집회는 산본교회 이상갑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는 부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기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큰 도전을 받았습니 다. 그중 가장 인상깊고 마음에 남았던 단어는 "신약 1독"이었습니다. 혼자라면 어려울 수 있지만 청년부 공동체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약 1독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요상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수련회 이후에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짐했던 신앙적 목표들을 이루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청년부 모두 파이팅 ♥

최지원 / 청년부 29기

청년부
겨울수련회 후기

WAVE MAKER라는 이름으로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웨이브 메이커,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주제로 수련회에 참여했다. 내가 깨뜨려야 할 옳지 못한 믿음, 우상은 무엇이였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렌 발걸음으로 수련회를 갔다. 첫날, 홍성원 목사님과 홍원기 군의 특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태어난 아들의 소아조로증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듣고,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으셨다는 연약했던 마음을 고백하셨다. 하지만 주님이, 목사님께 목사님이 결국 아버지라는 음성을 주셨고, 주님께 나아가 감사드렸다고 하셨다. 사랑의 아버지로, 목사로 살아가시는 그 분의 간증을 들으며,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로 삶을 살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임을 느꼈다.

둘째 날 이화선 간사님의 이야기도 나를 깨뜨렸다. 간사님은 1일 1전도로 삶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셨다. 지하철의 토를 자신의 옷으로 치우시며 토의 지독한 냄새를 맡으시고, 우리의 죄도 토와 같이 밖으로 나왔을 때에 그 더러움이 어떠할까라는 생각과 그 토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 후 그분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셨고,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복음의 접점을 찾고 계신다. 매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그 마음에 내 마음도 도전을 받았고, 어

떤 일이던지 주님을 생각하는 시선으로 바라봄에 간사님의 중심에 굳건히 주님이 계시는 것을 느꼈다. 주님이라는 진리로 섭리의 물결을 이미 만들고 계신 간사님을 통해, 나 또한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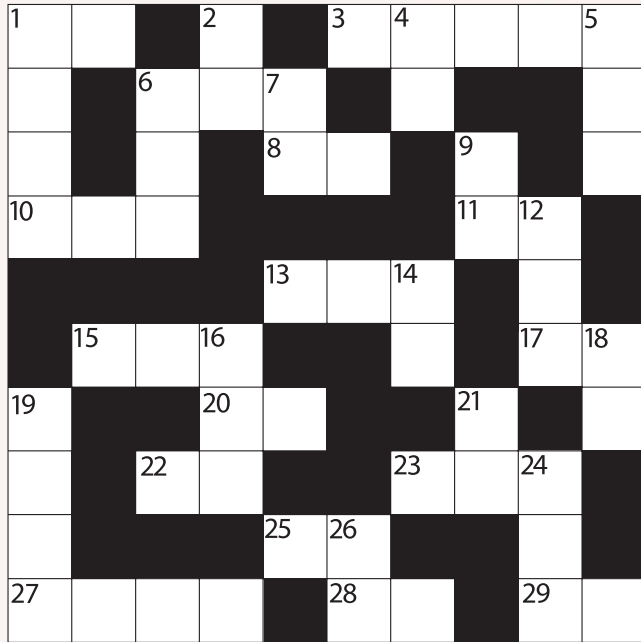
이틀 간 말씀 전해주시는 이상갑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내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해야 내 삶이 형통함을 알았고, 대화와 질문으로 주님과 소통해야 함을 느꼈다.

수련회를 통해서, 단순히 믿음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가 되어야함을 느낀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라는 공동체가, 머리이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명으로, 감사하며 그 계획하신 길을 같이 걸을 수 있음에 행복하다. 3일 간의 짧은 기간으로, 잊지 않을 경험을 하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공동체 프로그램, 조모임을 통해 같이 시간을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음에 넘치는 감사를 드린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깊은 교제의 수련회였다고 고백하고 싶다. 사랑해요 청년부! 사랑해요 주님!

장윤태 / 청년부 35기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아가 편

이번 호는 <아가> 편입니다. <아가>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으나, 후에 저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가’는 ‘우아한 노래’라는 뜻으로, 전체가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면적인 내용은 남녀의 사랑이지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78호 전도서 편 정답



가로 힌트

- 어떤 까닭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 4:10)
- 향이 아주 좋은 술. <아가>에서는 석류즙을 이것이라고 말했다. (아 8:2)
-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수. 성경에서는 보통 레바논에서 자라는 삼나무를 말한다. (아 1:17)
- 짙은 남색을 띤 붉은 색. 색의 원료를 구하기가 어려워 성경 시대에는 왕실이나 귀족을 상징하는 색이었다. (아 7:5)
- 부처꽃과에 속하는 관목. 백색이나 황색의 향기로운 꽃을 피우며, 구약 시대에는 꽃잎을 말려 화장품으로도 사용했다. (아 4:13)
- 세 번에서 두 번을 뺀 횟수. 네 번에서 세 번을 빼도 된다. (아 4:9)
- 아름다운 홍백색의 무늬가 있으며 재질이 무른 돌의 한 종류. 가공하기 편하여 도장이나 그릇을 만든다. (아 5:15)
- 레바논 부근에 있는 산. 이곳에서 같은 이름의 강이 시작되어 다메섹으로 흘렀다. <열왕기 하>에서는 ‘아바나’로 표기하고 있다. (아 4:8)
- 날씨가 기운이 온화하고 맑음. <아가>에서는 여인과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아 1:16)
- 어떤 일의 증거나 표적으로 삼기 위하여 돌, 나무, 뿔 따위에 새겨 찍도록 만든 물건. ‘인장’이라고도 한다. (아 8:6)
- 나무와 풀이 우거진 곳. 숲보다는 좀 작은 느낌으로 여러 종류의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 (아 2:3)
- 사해 서쪽, 쿠파란의 남쪽에 있는 성읍.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으로 샘물을 중심으로 오아시스를 이루어 주변에 농장과 포도원이 형성되었다. (아 1:14)
- 감람나무과에 속한 나무의 진을 굳혀 만든 향품. 약재로 쓰였으며, 불에 태우면 강한 향이 난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로 황금과 몰약과 이것을 바쳤다. (아 3:6)
- 기름을 바른 듯 빠르고 부드럽게.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 7:9)
- 동물과 식물의 지방분을 뽑아낸 액체.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 올리브 열매에서 얻었다. (아 1:12)
- 대개 금속으로 만든 고리를 여러 개 이어서 만든 줄. 금과 같은 귀금속으로는 주로 목걸이를 만든다. (아 1:11)

세로 힌트

- ‘예쁘고’를 예스럽게 표현하는 말. “내 사랑아 너는 ○○○○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 1:15)
- 팔꽃나무과의 상록교목에서 얻는 천연 향료. 나무를 땅속에 묻어 발효시켜 만든다. 유향, 몰약과 함께 구약 시대의 주요 향품이었다. (아 4:14)
- 천장이나 들보, 지붕을 받치기 위해 나무나 돌로 세우는 것. 대개 둥그렇게 길게 만들어 세우며, 그 자체를 건축의 주요 장식으로도 삼기도 한다. (아 3:10)
-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이 살았던 마을.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의 신부’를 가리키는 여성형 이름으로 보기도 한다. (아 6:13)
- 백합과에 속한 다년초. 성경에서는 순결한 신부를 상징하는 식물이다. (아 2:2)
- 양이나 염소와 같은 가축을 돌보며 기르는 사람. 목동이라고도 한다. (아 1:8)
- 무엇인가에 달려 있는.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 8:12)
- 붓꽃과의 다년초. 구약 시대 귀하게 여겨지던 방향성 식물로, 꽃을 말려서 방향제나 진정제로 썼으며, 음식의 향이나 맛을 내는 향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아 4:14)
- 도금양과에 속하는 과일나무의 열매. 주먹만한 크기이며, 익으면 껍질이 벌어져 뽕뽕하게 들어 있는 붉은 씨앗들이 드러나 보인다.
2023년 성지순례팀은 현지에서 일행 중 한 분이 모두에게 사 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짜내어 파는 이 열매의 즙을 먹어볼 수 있었다. 신선하고 달콤했다! (아 6:7)
- 마타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 히말라야 고산 지대에서 자라는 나드 식물을 말한다. 뿌리와 줄기에서 값비싼 향유를 추출한다.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나드 향유가 이 풀에서 추출한 것이다. (아 4:13)
- 천남성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 연못이나 습지에서 자라며, 잎에서 특이한 향이 난다. 한국에서도 단오에 이 풀을 넣어 삶은 물로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다. (아 4:14)
- 구슬을 끈으로 꿰어놓은 것. 보통 장식품으로 사용한다. (아 7:1)
- ‘나에게’의 준말. “○○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 1:2)
- 세검에서 북동쪽으로 약 9km 떨어진 가나안의 성읍. 이름의 뜻은 ‘기쁨, 아름다움’이다. (아 6:4)
- 좋은 냄새. 꽃이나 갓 볶은 커피에서 나는 기분 좋은 냄새를 표현할 때 흔히 ‘○○롭다’라고 한다. (아 7:13)

교회사용설명서 ㉔

교구 이해하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교구’란 종교 조직에서 지리적 공간을 나누어 교인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조직체계입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여러 다른 종교에서도 교구를 두어 관리합니다. 가톨릭교회와 같이 계선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진 종교에서는 나라마다 일정 규모를 단위로 교구를 두어 관리하는데 이 경우 각 교구가 하나의 교회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 교구를 묶어 대교구, 그 위의 관구와 같이 여러 단계를 두기도 합니다.

기독교 한국 선교 초기인 19세기 말부터 1909년까지 선교사들이 서로 다른 교단 사이에 갈등과 중복이 없도록 선교지역을 분할했는데 이 당시의 선교지역은 마치 가톨릭의 관구와 같이 큰 지역을 의미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선교지역 분할과 병행하여, 1907년 9월 평양장대현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립노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독립노회는 선교회로부터 독립하여 자치권과 권징의 권한을 갖는 한국 장로교회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노회는 교단 산하에서 일정 지역의 지교회를 관장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노회 아래 지교회, 지교회 안에 교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와는 ‘교구’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주님의교회는 초기에는 교구가 따로 없었으나 교인이 늘면서 교구가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 당시 교구는 사랑교구, 온유교구, 충성교구, 희락교구, 화평교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05년 무렵 지역을 나누어 1교구에서 7교구까지 구성하고, 따로 2~30대 젊은부부 교인들로 8교구를 구성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그동안 교구 안에 지역별로 구성되어 ‘구역모임’이라고 부르던 소그룹 모임을 ‘겨자씨 모임’으로 바꾸었습니다. 2009년 새로 건축된 잠실 1, 2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교인이 대폭 증가하자, 2011년 7개 교구를 9개 교구로 재편했고, 2013년에는 10개의 교구와 20~30대 부부 겨자씨로 구성된 2030교구로 늘렸습니다. 2024년 현재 주님의교회 교구는 지역 단위로 7개, 젊은이 교구 1개를 포함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교구 아래 소그룹인 겨자씨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주님의교회 교구 지역 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구	교역자	지역
1	박주영 목사	송파구(잠실7동, 우성APT, 아시아선수촌APT),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의왕시)
2	박민규 목사	강남구(대치동, 도곡동,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서초구(양재동, 우면동, 내곡동), 동작구(사당동), 관악구, 구로구, 과천시, 안양시, 수원시, 인천시
3	이종성 목사	송파구(잠실1·2동, 엘스APT, 리센츠APT, 가락동, 헬리오시티, 문정동 웨비리APT), 종로구, 은평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산
4	배윤환 목사	강남구(역삼동, 삼성동, 청담동, 압구정동, 신사동, 논현동), 서초구(서초동,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동작구(사당동 외),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특수(장애인)
5	윤경수 목사	송파구(신천동, 장미APT, 파크리오APT, 송파동,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 거여동, 장지동), 위례, 경기도 광주시
6	차승천 목사	송파구(풍납동), 강동구(암사동, 천호동, 성내동, 고덕동, 명일동, 상일동),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구리시, 하남시(위례 외),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7	한시영 목사	송파구(잠실본동, 삼전동, 석촌동, 잠실3동, 트리지움APT, 갤러리아APT, 레이크APT, 주공5단지), 이천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평택시
8(젊은이)	이대혁 목사	20~30대 부부, 36세 이상 미혼자
청년부	정구민 목사	~35세까지 청년(미혼자)

관리법과 주의사항

주님의교회 등록교인 수가 만 명 안팎이므로, 각각의 교구를 담당하는 교역자 역시 웬만한 지교회 규모를 넘는 평균 1천 명 이상의 교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은 당연히 양육과정의 강의도 담당하고, 여러 사역부서도 섬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담당 교구 교역자와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는 민원(?)도 없지 않습니다.

교구의 규모를 작게 하고 수를 늘려 담당 교역자를 더 늘리는 것이 교역자와 교인의 접점을 높이는 지름길이었지만, 재정의 50%를 외부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는 주님의교회 원칙에 따라 내부 재정을 긴축하다 보니 더 많은 교역자를 모실 여유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교회 모든 교역자들은 교구 교인들이 대화를 청할 때, 상례와 같은 긴급한 상황만 아니라면, 언제나 친절하게 받아주십니다!

함글함글

교회일정

2/14(수) 재의수요일
2/18(주일) 사순절1, 정기당회

알립니다

1. 늘푸른대학 제13기 학생모집

대 상 만65세 이상 주님의교회 교인
등 록 2/6(화) 10:00~12:00 (중예배실 로비)
등록금 1학기 10만원 / 2학기 8만원
개 강 3/5(화) 10:00 중예배실
문 의 정원영 교무처장(010.5339.6464)

2.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

주 제 FRIEND MAKER(행 1:8)
일 시 2/17(토)~18(주일)
신청방법 구글신청서(각 부서 네이버밴드)로 신청
문 의 이상훈 목사(010.9808.4788)

3.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3/14 ~ 5/27 (매주 목요일)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비 15만원(주님의교회 교인 본인부담 5만원)
특 전 교육 수료 후 200시간 봉사 시 소정의 시험 후 한국호스피스협회 인증서 발급
문 의 이부자 권사(010.3630.5955)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대합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